

SKT, 혈액 가뭄 해소 위해 헌혈 릴레이 나선다

**- SKT 직원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헌혈 동참**

**- 전국 주요 사옥 및 SK텔레콤/SK스퀘어 자회사로 헌혈 릴레이 확대**

**- “SK그룹이 솔선수범하여 헌혈에 나서자”는 최태원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2021.12.15] -사진보도자료-**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이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헌혈 릴레이에 나섰다.

SK텔레콤은 15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단체헌혈 행사를 열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이번 헌혈 행사는 SK그룹 헌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K그룹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계사 구성원, 협력사, 사회적 기업,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헌혈 캠페인 ‘생명 나눔 온(溫)택트’를 시작하였다.

국가적인 혈액 부족 상황을 우려한 최태원 회장이 SK그룹부터 솔선수범하여 헌혈에 나서자고 제안하면서, SK그룹은 15일 서린사옥과 SKT타워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국 관계사의 각 사업장으로 헌혈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SK텔레콤도 자체 개발한 모바일 헌혈 앱 ‘레드커넥트’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기로 하고, 전국의 주요사옥과 SK스퀘어 및 자회사 등 ICT패밀리 기업들 모두 이번 헌혈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긴급 수혈 환자를 위한 ‘모바일 헌혈’ 서비스를 2007년 시작한 이후, 2011년에는 앱으로 헌혈 예약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헌혈’ 서비스를 출시하고,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헌혈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레드커넥트’를 출시하는 등 ICT를 활용한 헌혈 서비스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왔다.

SKT 박용주 ESG담당은 “헌혈 캠페인을 통해 ICT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은 15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단체헌혈 행사를 열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

**▶ 관련문의 : SK텔레콤 전략PR팀 이교혁 매니저 (02-6100-3870)**

**<끝>**